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꾸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3대장군의 손길아래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온 공장의 발전로정을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연혁소개실을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은 력사가 있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고 생산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짜배기, 빵, 사탕, 과자작업반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정형과 제품생산실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에서 준 과업대로 원료준비로부터 제품생산과 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식료공업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다른 나라들에서조차 엄두를 못내는 기술공정의 현대화를 완성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손로동이 피할수 없는것으로 되였던 짜배기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것이 그 대표적실례라고 하시면서 이것만 놓고보아도 조선사람들이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인가를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식료품의 위생안정성을 철

저히 보장하고 로력을 절약하며 생산인가를 대폭 낮출수 있게 생산공정을 현대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가장 정확하게 관철한 공장의 기술집단과 평양기계대학교원, 연구사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적성과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적과제들을 높이 정해주고 그 관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할 때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 경험을 다른 식료공장들에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고 지

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생산환경의 무균화, 무진화를 보장하기 위한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완벽하게 확립된 일터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원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은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안팎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공장, 자신께서 정이 든 공장이라고 거듭 만찬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7월 최전연초소들을 시찰하던 날 공장에서 생산하여 정상적으로 보내주고있는 당과류들을 보았는데 심심산플 외진 초소에서 이 공장 제품을 보니 감흥이 새로왔다고, 얼마나 기뻐서 지 모른다고, 군인들이 무척 좋아하던 모습을 생각하면 괴로가 순간에 가서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에서 앞으로도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식료품을 군인들에게 더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항공육전병구분대들의 강하 및
대상물타격실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항공육전병구분대들의 강하 및 대상물타격실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훈련은 항공육전병들이 생소한 지대에 투하되어 행군, 숙영, 대상물타격을 비롯한 실동훈련을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함으로써 육전병들을 종합적인 전투행동조법에 숙련시키고 작전전투계획의 현실적가능성과 구분대들의 전투능력을 확정한데 목적을 두었다.

훈련에는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 제162군부대관하 구분대들의 항공육전병들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수송기편대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감시대에서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항공육전병들을 태운 수송기들이 훈련장상공을 덮으며 날아들고 항공육전병들이 우박처럼 쏟아져내렸다.

서늘푸른 칼날이 되어 원썬들의 심장

을 무자비하게 도려낼 멸적의 각오로 가슴 불태우며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항공육전병들은 지정된 강하지점에 정확히 착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항공육전병들이 강하를 정말 잘한다고, 담대한 배짱군들이라고 하시면서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평시의 훈련에서 바치는 땀이 없이 레일의 전투승리를 바랄수 없다는것을 깊이 간직하고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

으켜온 항공육전병들은 다음전투행동으로 신속히 이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훈련명령을 집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제전법을 구현한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들과의 대결전은 가장 극악한 조건속에서 진행된다 고 하시면서 군인들을 언제 어떤 정황

이 조성되여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새로운 훈련방법과 방식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군장병들이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주체혁명위업완성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전천각새로건설

전천각이 새로 건설되어 봉사를 시작하였다. 자강도 전천군 읍치구에 날아갈듯 한 합각지붕을 엮고 일떠선 각에는 대종식사칸과 결혼식방, 쏘나무방, 은방울방, 진달래방 등으로 특색있게 이름을 단 방들이 정갈하게 꾸려져있다.

군에서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체의 힘으로 인민들이 즐겨찾는 금양봉사기지를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건설기능공들을 망라한 돌격대를 조직하고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이도록 하였다.

공사지휘부에서는 설계와 자재보장대책을 앞세우

고 공사조직과 시공지도를 짜고들어 기초굴착, 팔조로림, 기와생산 등을 일체계획보다 훨씬 앞당겼다.

전천각에서는 강병이, 메밀, 감자농마곡수를 비롯한 각종 국수를 전문으로 하면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로리를 만들어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봉사하

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은정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해 전천각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민족의 향취가 넘쳐나는 로리의 가지수를 늘이고 봉사수준을 높이는데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의 입에서는 《대화》와 《협력》에 대한 말이 자주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에도 《8.15경축사》라는데서 《환경협력의 통로》, 《민생의 통로》, 《문화의 통로》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언제인가는 비무장지대안에 《세계평화공원》을 꾸리자고 하고 또 어디 가서는 《인도적문제해결》, 《민생인프라구축》, 《주민간동질성회복》을 말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북남관계의 본질적문제해결을 도외시한 부차적인 문제들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사실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하자고 하면 이미 북남사이에 합의되고 리행해오던것을 시행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중요한것이다.

북남사이에는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민족공동의 귀중한 합의들이 있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이 력사적인 선언들에 의해 북과 남사이에는 지난 시기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북과 남사이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졌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7년간 북남사이에

히 진행되어 겨레의 통일열기를 고조시키고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북남협력의 힘찬 동음이 울려 퍼졌다. 공화국의 뜨거운 동요의 정과 북남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마련된 금강산관광사업은 6.15시대와 더불어 더욱 활기를 띠고 벌어졌다.

특히 2007년의 력사적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창설, 개성공업지구건설확대, 백두산관광 등 여러 분야의 쌍방향의들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리명박보수《정권》의 등장으로 북남관계는 한순간에 동결되었다. 리명박《정권》은 북남

시켰다. 하여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어 10년간 근 200만명에 달하는 남녘의 각계층인민들이 찾았던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로의 관광길도 가로막히었다.

보느바와 같이 좋게 나가가던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파거어로 돌린것은 남조선의 보수당국이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의 것은 부정하고 그 무엇을 새롭게 내들기만 한다면 북남관계는 한결음도 전진할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지게 되기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차적인것을 자꾸 꺼내들것이 아니라 북남사이에 이미 합의되고 리행해오던것들을 주저없이 시행하는데로 나아가야 하며 그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그 무엇을 제기하는것이 순차일것이다.

정학준

문제해결의 근본은 합의리행

는 21차의 상급회담과 13차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그리고 군사당국자회담을 비롯하여 무려 140여차의 회담과 접촉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북남대화력사에서 전례없는 기록이다. 당국회담도 진행되고 민간급의 각이한 대화들도 수시로 진행되었으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하여 다방면적인 협력사업들도 활기있게 진행되어왔다. 북과 남사이에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

10.4선언발표이후 남조선에 리명박보수《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만도 북과 남사이에는 10.4선언의 리행을 위한 총리회담과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비롯하여 많은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분야별 합의리행기구가 구성운영되어 수십여건에 달하는 협력사업들이 합의되고 실천적 후속조치들이 취해졌다. 중요하게는 북남관계발전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공동선언들에 대해 《부도난 약속어음》이니 뭐니 하며 북남사이에 이룩된 합의들을 로골적으로 파기하고 6.15의 성과들을 모조리 뒤집어엮었다. 리명박보수《정권》의 광란적인 동족대결책동으로 활발히 진행되던 대화도 꺾이고 폐왕길도 막히었으며 활성화되던 협력사업들도 차단되었다. 리명박《정권》은 저들의 불찰로 일어난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금강산관광도 일방적으로 중지